

마가리(길모퉁이)

구마가와주쿠 거주자는 시몬초와 나칸초 등 마을과 마을 사이 도로상에 있는 L자형 모퉁이를 '마가리(마가리카도)'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은 15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산성의 군사적 방어 잔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스가타(柵形, 한자 의미 그대로 '상자형'이라는 뜻)라고 불리는 이 구조는 침입자의 진행을 늦추고, 그들의 시선을 차단해 쉽게 전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의 성 아래 도시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방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비교적 평화로웠던 에도 시대(1603년~1867년)에 이 마가리는 번의 법령이나 명령을 게시하는 공식 표식을 놓는 고사쓰바라는 공동공간 역할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마스가타는 흔히 마을 입구에 만들어졌지만, 구마가와주쿠의 마가리는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마가와주쿠의 서쪽은 비교적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은 원래 배치에서 서쪽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마가리는 예전에 서쪽 끝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